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형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해결사 내안에 있다” 명심하도록

17면에서 계속

다고 선명을 해준다면 온가쪽이 한마음이 돼서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달에 서너번은 가족회의를 하면서 가족이 다 모여앉았을 때 어려운 일도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것이 바로 화합할 수 있는 길이며 서로 일하는데 마음이 가고 힘이 없이 가고 오는 통로가 됩니다. 서로 일하는데 마음이 가고 힘이 없이 가고 오면서 뒤를 받들게 되는 겁니다. 꼭 몸으로 말로 안해도 이랬으면 뒷받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나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식구가 한마음이 돼준다면 이거는

천하고 계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자가 인연이 되면 그 사람들 도와주고, 무의탁 노인들이 인연되면 그 노인들을 내 부모처럼 봉양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애들을 도와주고, 그런 게 진짜 방생 아닐까요. 물론 물없이 사는 거 물있는 데다 갖다 넣어주는 것도 방생이구요. 또 옛날에 제비다리 부러진 것 치료 해줬다는 것처럼, 가다가 보면 다리가 부러져서 못 나가는 거 감아서 치료해서 날려보내는 것도 방생이구요. 그런 게 진실한 방생이지 어떻게 잡사는 고기 잡아다 물에 넣는 게 방생입니까? 그렇게 방생이 잘못돼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다 요즘 들으니까 뭐 외국 두꺼비를 갖다가 방생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국에도 많



그림 · 최주현

“오로지 자기 근본만 믿어야지 판데를 믿었다간 맨날 속고 걸리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죠”

100%를 그냥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건지 모릅시다. 그런데 자식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모르고 아버지도 자식 하는 일을 모르고 아버지한테도 서로 모르고 이러니까 나가서 혼자 뛰고 혼자 근심하고 이리다보면 몸도 마음도 망가지게 됩니다. 안에서는 안해도 오해를 사고 그냥 뛰다가 병이 드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게 아니라 자비가 부족해서요. 결혼을 해도 사랑만 가지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조건이 다 맞아서 자비가 없어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문제들을 볼 때 사랑에 관한 것 전부 다 물어 놓고, 물에 넣으면 넣는 그 즉시 또 그물을 쳐서 잡아다 놔요. 그건 방생이 아니라 지옥고를 당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방생이 얼마나 할 때가 없어서 그런 방생으로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낫지. 고기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어느 쪽이 진짜 방생이 되겠습니까? 왜 잘 사는 고기를 잡아다가 잡히면서 죽고 바깥 물이 안맞아서 기다리다가 죽고 거들거들 고생을 하게 만들니까? 고기방생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요, 예전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지렁이나 미꾸라지, 개재, 게 할 것 없이 길바닥에 즐비했습니다. 그럴 때 그것들이 물이 빠지고 나면 길바닥에서 모두 죽을 테니까 그곳에 담아서 감에다 넣어준 그런 미치로 방생이란 게 생겼습니다. 물이 없는 데서 사는 고기를 물 있는데 갖다 넣는 게 방생이지, 어떻게 물 있는 데서 잘 사는 걸 잡아다가 넣고 또 잡아다가 고생을 시키고 그 중간에 죽는 것도 많을 텐데 또 잡아다 놓고 또 건지고, 이게 방생입니까, 어디? 그건 방생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죽이는 것만도 못하죠. 그런 것만이 방생이 아니라 이 사람 방생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데 왜 외국에서까지 사다가 넣어가지고 그 야단입니까?

하여튼 어느 누구든지 겸손하고 둥글게 너무 욕심차려지 마시구요, 그저 내한테 닥치는 것만 가져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본다고 해도 그렇고 그거 뭐 때문에 저렇게 고생들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뭐 때문에 대통령을 하고 왕을 하고 그래서 그 난리가 나고 칼부림이 나고 죽고 이렇게 사느냐는 얘기죠.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나 같으면 안할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선 있는 걱정, 없는 걱정 또 자기 영혼도 다 더럽히고 자식들대까지도 더럽히고 그냥 대대손손이 그게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성한 이름을 남기진 못해도 그런 이름을 남기다하면 그건 치욕적이죠. 우리가 평범하게 지극하게 참 자비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짐승들이나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 추위를 다 참고 불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 사람이 고등동물로서 그런 인내도 없고 질서도 없이 무분별하게 산다면 우리는 사람될 가치도 없

지고 계시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평등한 것이 똑같아서 평등한 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본은 평등하지만 이 모습으로서 공리는 대는 평등치가 않습니다. 천차만별이죠. 그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용통성을 용도로 따르자 다 가지고 계시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생자부가 왜라 해서 사생자부의 과정을 가르치기 위해

한 자기의 보디가드는 자기한테 있다는 거, 진짜 자기의 해결사는 자기한테 있다는 거 그것을 믿으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경계를 잘 헤쳐가려면

저는 마음공부하지 2년정도 됐는데 스님을 이제 두번째 뵈게 됐습니다. 우뚱히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속 주인공에 관하면서 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한 3개월 전부터는 일하는 데만

빛이 들어났습니다. 남편 성격을 아는지라 말도 못하고 입을 바 꾸어도 빛은 더 늘어나고 제가 감당키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빛에 시달리는 중에 한번은 직접 남편에게 전화가 가는 바람에 남편이 알게 되고 저는 그게 무서워 죽으려고 약을 먹었습니다. 친구가 발견해 살아나긴 했지만 아직도 남편한테 말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가르침 주십시오.

당신으로 인해서 모든 게 생겼고 욕심으로 인해서 일이 커지는 거니까 먼저 '주인공, 당신만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고 갈 수 있어.' 하고 관하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아무리 남편이 무서워도 남편한테 가족을 위해

으로 기도하고 애쓰지 마세요. 안으로 열심히 관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분란 안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관하고 살아요. 종교라는 것도 자기가 먼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없었으면 종교도 없었겠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체는 당신 자신한테 있습니다.

처남이 정신분열증 심해

저 처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고시 공부를 하다가 2차 시험에서 계속 낙방을 했습니다. 가족들의 기대도 있고 하니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이 많았나 봅니다. 지금은 정신분열증이 심해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저도 많이 관하고 있습니다만 다

“짐승이나 새들이 추위 참고 불이 올 때를 기다리듯이 우리 사람들도 인내 갖고 살아야”

서 할 수 있어요. 소리는 질러도 속으로 는 애뜻한 마음이 있으니 그래도 가족을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죠. 그러나 무서워 천도재를 지내라는 게 아닙니다. 나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천도재 지내는 의미

저는 기독교 신자로 마음공부를 일게 된 건 얼마되지 않습니다. 시댁의 어려운 일을 계기로 한마음선원 다녔던 언니가 인연을 맺어 주었습니다. 집안 일이 계속 터지자 언니가 천도재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응하지 않다가 공부를 좀 더 하면서 조금은 의미를 알게 되어 천도재를 지냈습니다. 다시 한번 스님의 가르침 바랍니다.

기독교에서는 부모님 제사도 안 지낸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보이는 절로만 밥 떠놓고 물 떠놓고 반찬해 놓고 그렇게 지내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을 내라는 거죠. 내가 내 부모 감사한 줄 알면 내 자식도 그럴 거 아닙니까? 될 바라는 거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

시하면 스님의 가르침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불성이 내 불성이나 불성이 아니에요. 그런 까닭에 당신의 불성이 있는 이상 다 하나로 가설이 돼 있었어요. 자기 주인공을 불성이라고 하는데 불성은 움직여지지 않고도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 심방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수레와 같애요. 그러나 모든 것을 심방한테 맡겨요. 내안에다 관해야만 에너지가 배출이 되지 그렇잖으면 배출이 될 수 없죠. 부처님이 계신다 해도 그 형상을 믿는다면 안되죠. 그거는 에너지가 배출될 수도 없고 에너지가 공급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 형상도 부처님 형상과 불이 아니요, 마음도 불이 아니요, 생명도 불이 아니라 하는 걸 아신다면 법당에 들어오나 나가나 항상 같이 한자리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와 같이 중심을 타고 그 심방이 이 몸통이 속에 있는 생명들을 다 이끌어 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의식들이 이 생각으로 나오는 거는 다 그냥 거기다 맡겨 놓으세요. 자기 주인공한테 다 맡겨버리고 '너만이 할 수 있고, 너만이 지켜줄 수 있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너만이 가정을 이끌어 줄 수 있다'고 부처님께 관하세요. 그러면 자꾸 달라질테니까요. 본인이 우선 관할 줄 아는 게 중요하죠. 옆에서 마음을 낸다 하더라도 본인의 집에 전화를 놓아야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자기 속의 의식들이 자꾸 자기 마음을 타고 나오는 거니까 본인에게도 관하는 걸 일러 주시고 식구들도 다 같이 공부하세요.

오빠가 녹내장으로 실명

스님 법문을 들은 뒤부터는 하루 하루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계가 닳았을 때 관할 줄도 알고 마음을 돌려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이와 같습니다. 제 오빠가 작년 9월부터 녹내장으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되고 또 한쪽 시력마저 지꾸 약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아무리 관해도 자꾸만 눈물만 나옵니다. 스님, 마음 내주시지요.

본인한테도 관하는 걸 일러주고 가족 모두 관하세요. 내가 좋아지면 상대가 좋아지고 상대가 좋아지면 내가 좋아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안됩니다. '좀 넓게, 돌 아나게 둥글게, 그리고 여유있게,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데 좀 넓게 웃어 살자' 하고 말이에요. '사계절을 다 지내도 항상 봄처럼 살자' 하구요. 봄이 와서 봄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봄이 온다고요. 그러면 속의 의식들도 그걸 따라주게 돼요. 그러니 자기 마음속에 진짜 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자기 근본 불성을 믿고 열심히 살도록 해요. 사람이 살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좀 당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같이 영원한 도반이 됩시다.

“좀 넓게 돌 아나게 둥글게 여유롭게 삼시다” “자비로 사랑하면 만물과 하나 될 수 있어요”

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마음공부라는 것을 하면서 마음의 근본으로 인해서 육신이 움직여지고 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부터 나오고 마음이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내 영원한 나의 근본 때문에 내 육신이 형성됐습니다. 알고 본다면 아주 지극히 쉬운 얘기예요. 내 육신이 하나인 줄 알지만 여럿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는 육신이 하나인데 마음이 다른 육신들한테 들어가서 자기가 돼왔고 그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분은 구태가 왜든 상관없고 어떠한게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전부나 나 아님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자비하게 평등하게 가

서 배 한 두더기를 놓고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수많은 과정을 겪고, 천 겁, 만 겁을 거쳐서 올 때 우리가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또는 형제가 되고 이렇게 됐다가 잠깐 또 진화해서 또 다른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해 올라 오기를 향해 헤아릴 수 없이 거쳐 올라 왔단 이겁니다. 그랬으니 현재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전체가 다 부모인 게 없고 전체가 내 자식 아님이 없다는 거죠. 순간 모습을 바꿔서 자식이 돼서 나오고 순간 바뀌어서 또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하니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있는 없는 하늘이 무너지든 땅이 솟든 간에 우리는 눈도 깜짝하지 말고 우리는 내 근본을 믿어야 합니다. 주인공이라는 이 자체도 이름이지만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근본 불성을 돕기 때문에, 그 불성만이 내 몸을 움직여지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보디가드가 되고, 해결사가 돼주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근본만 믿어야지 판 데를 믿었다간 맨날 속고, 걸리고, 맞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깥에는 믿고 믿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내 근본이 나를 이끄는 거지, 누가 대신 살아줄까, 죽어줄까? 항상 얘기 하지만 부처님이 옆에 계시도 대신 못해주는 일입니다.

바빠서 거의 잠도 못자십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이거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주인공이 끌고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어떤 경계에 부딪혔는데 잘 풀리지 않아 '주인공, 너 박살내 버리겠다. 나오너라' 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속에서도 내 자신이 주인공을 찾았다는 그 사실이 저는 기쁘고 마음이 푸근했습니다. 좀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도록 스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박살을 내놔자 박살을 당할 사람은 당신이지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살내겠다는 생각도 말고 '네 몸통이 내가 잘 이끌어 가야잖아. 이렇게 갈팡질팡 끌고 가셔야 돼?' 하고 그렇게 좀 인자하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맑고 깨끗하게 또 다복하게 살아요. 열심히 하면 이게 다 일체제불과도 연결이 돼있어요. 이 불성은 일체 만물만생하고도 가설이 돼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자비하게 도와주는 빈 손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해결사는 내안에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사세요.

빛이 많아 감당이 어려워요

저의 남편은 공무원인데 생활이 어려워 제가 좀 도움이 될까 하고 가게를 했습니다. 처음에 자본이 없어 빛을 얻어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되어 점점

협찬 임희석·황진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서2동 425-5 구룡빌라 A동 402호

삶은 결코 썩지 아니라는 이 통쾌한 역설!

삶의 모든 고통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발판임을 중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大行 스님의 육성 법어집

A5신 288쪽 값 6,000원

역시아문 종로구 경지동 110-33 737-8881(한진), 737-0696(영일), 팩스 (02)737-0696